

코튼 르네상스 - 다시 면의 가능성 찾아 나서 <2/2>

◎ 시키보 - 전략 면 소재의 기능성 연구하여 듀얼 액션 시리즈 내세워

시키보는 전략 면 소재(綿 素材)인 ‘듀얼 액션(Dual action)’ 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방적 · 직포 기술로 면 소재의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데에 있다.

듀얼 액션은 시키보가 개발한 특수 정방 교연사(特殊 精紡 交撚絲)인 ‘CMY’를 베이스로 개발되었다. 잔털이 적고 실의 강력이 보통의 링 방적사보다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단지 광택이나 촉감과 같은 품질뿐만 아니라 면 소재의 기능성 등 특징을 구체화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한 예가 이번에 개발된 약연사(弱撚絲)를 사용한 ‘듀얼 액션 스위트 트위스트(dual action sweet twist)’이다. 이 레벨의 약연사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듀얼 액션이니까 가능하다. 반대로 정방 강연사(精紡 強撚絲)에 의한 텍스타일도 연구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런 과제를 연구하는 것은 면직이나 편물의 가능성(可能性)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약연사를 사용하면 폭신한 벌키(bulky)성이나 소프트한 맛을 보여준다. 강연이면 산뜻한 느낌이나 접촉 냉감(接觸 冷感)도 가능하다. 요컨대 정방 교연사를 베이스로 이제까지의 방적 · 제직 · 가공 기술과 합침으로써 아직도 면 소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견해이다.

역사적으로는 면 소재도 다양한 기능화(機能化)가 연구되었다. 고밀도화(高密度化)함으로써 방수 통기(防水 通氣) 등을 한 일례(一例)가 있다. 그러던 것이 합섬이 세상에 나타난 후로는 이와 같은 기능성 연구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 회사에는 강하게 남아 있다. 다시 한 번 면의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개발을 추진한 것이 듀얼 액션을 만들어 낸 의의(意義)이다. 왜냐하면 착용할 옷감이나 옷으로의 착용감 쪽에는 면에 우위성(優位性)이 있기 때문이다.

◎ 후지보 홀딩스 - 면 100%인 고급 존의 기능성 내의 개발

지나간 몇 해 동안 기능성 내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합섬을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중고년층(中高年層)을 중심으로 ‘내의는 면 100%라야 한다.’라는 니즈도 뿌리깊이 남아 있다. 후지보 홀딩스는 면 100%로도 기능 내의가 가능하다는 것에 도전하고 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급 내의 브랜드인 ‘로모스(L’homos)’에는, 면 100%이면서 다양한 기능이나 품질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도 면 100% 접촉 냉감 내의(綿 100% 接觸 冷感 內衣)인 ‘로모스 아이스드 코튼 ; L’homos iced cotton’, 면 100% 온감 내의(溫感 內衣)인 ‘로모스 난<暖> 코튼(L’homos 暖 코튼)’을 개발하였다. 고급 내의 분야에서는 멘즈(men’s)를 중심으로 면 100%에 대한 니즈(needs)가 크다. 그래서 ‘로모스 시리즈(L’homos series)’도 백화점을 중심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 면의 상질(上質) 촉감을 만들어 낸 ‘로모스 수에드 코튼(L’homos suede cotton)’도 개발하였다. 표면은 광택감이 있는 플랫(flat)한 생지 느낌이지만, 피부에 닿는 면은 소프트감이 있는 초장면의 엘레강스(elegance)와 부드러운 촉감을 모두 살리고 있다. 또한 면 100% 소취 기능 내의인 ‘로모스 데오막스(L’homos Deomax)’도 발표하였다. 소취 가공으로는 화합섬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데, 일반적인 이너 분야에 면 100%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백화점 buyer에게 제안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기능성 내의라고 하면 화합섬의 독무대로도 보이지만 사실은 습윤시 발열 등은 면과 같은 셀룰로스 섬유인 성질이다. 면과 같은 천연 섬유야말로 원초적인 기능 섬유이다. 그와 같은 특색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로모스(L’homos)’의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신나이가이멘 - 면에 다른 소재 혼방함으로써 새로운 소재감 만들어

면에 다른 소재를 혼방함으로써 새로운 소재감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성질이 다른 원면이나 소재를 합쳐서 가방성(可紡性)을 유지하는 혼방 기술(混紡 技術)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신나이가이멘은 이색 염색사(異色 染色絲 : mock grandrelle yarn)를 생각하면서 키워온 혼방 기술로 면 소재의 새로운 표정(表情)을 만들고 있다.

추동 소재의 새로운 작품으로 순은 라메 혼방사(純銀 lame 混紡絲)를 사용한 원형 편지(圓型 編地)를 발표하였다. 라메(금, 은 등의 박(箔)을 섞어 만든 실이나 織物)는 이제까지와 같이 은색만이 아니고, 오로라 라메(aurora lame)도 새로 섞어 넣고 있다. 보통 라메를 사용하는 것은 교연사(交捻絲)가 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혼방으로 라메를 섞어 넣은 것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간단한 기술이 아니다. 후가공이 가능한 특수 라메를 사용하고 있어 필(疋) 염색이나 실켓(silket) 가공도 가능하다.

이 회사가 장기로 하는 ‘이색 연사(杻絲 : mock grandrelle yarn)’에서는 실의 색조를 크게 변화시킨, 큼직하고 거칠게 섞어 넣은 색조가 호평을 받았다. 면 100%이면서도 동물털 무늬(獸絨)라고 부르는 양모조(wool-like), 방모조(woolen-like)의 생지((生地) 느낌이 가능하게 되었다. 슬럽 이색 연사(slub grandrelle yarn)를 사용한 것도 원형 편지로 상품화하고 있다.

다양한 원료를 혼방하여 면방다운 캐주얼한 표정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신나이가이멘이 상품 만드는 특징이 있다. 면과 혼방하는 원료는 텐셀(Tencel) 등 정제 셀룰로스 섬유로부터 캐시미어(cashmere)와 같은 수모(獸毛)까지 가능하다.

면의 좋은 점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캐주얼감일 것이다. 거기에 다른 원료를 복합함으로써 캐주얼 감을 남기면서 새로운 표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도 면(綿)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또 다른 측면이 되고 있다.♣